



2008년부터 2년 연속 한국프로골프 상금왕에 올랐던 배상문(24·키움증권)이 원아시아투어를 겸해 열린 SK텔레콤오픈(총상금 9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은 배상문이 8번홀에서 아이언 티샷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배상문 대역전 드라마 썼다

SK텔레콤 오픈, 3타 앞선 김대현 3타차 따돌리고 우승 3년만에 패권탈환, 상금 2억 보태... 탱크 최경주는 3위

2008년부터 2년 연속 한국프로골프 상금왕에 올랐던 배상문(24·키움증권)이 원아시아투어를 겸해 열린 SK텔레콤오픈(총상금 9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배상문은 23일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파72.7천 24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타를 줄여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를 기록했다. 2위 김대현(22·하이트)과는 3타차.

시즌 첫 승, 개인 통산 7승째를 거둔 배상문은 2007년 이후 3년 만에 이 대회 패권을 탈환했다. 또 7승 가운데 2007년 SK텔레콤오픈, 2008년 한국오픈, 2009년 매경오픈과 한국오픈과 이번 대회까지 5승을 메이저에서 따내 큰 경기에 강한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우승 상금 2억원을 보태 배상문은 상금 순위에서도 2억3천만원이 돼 김대현(3억2000만원)에 이어 2위로 올라서며 3년 연속 상금왕 가능성도 밝혔다. 다만 18번 홀(파5) 10m 정도 거리에서 시도한 버디 퍼트가 약간 짧아 한국프로골프 사상 72홀 최소타 기록인 23언더파에 1타가 모자란 것이 아쉬웠다.

3라운드까지 김대현에게 3타 뒤진 2위였던 배상문의 역전극은 7번 홀(파5)에서 시작됐다. 이때까지 역시 3타 차로 김대현에게 뒤져 있던 배상문은 김대현의 티샷이 분실구로 처리가 되며 역전의 발판을 닦았다.

김대현이 퍼트를 두 차례 하며 2타를 잃은 반면 배상문은 5m가 넘는 버디 퍼트를 집어넣으며 순식간에 동물을 이뤘다.

기세가 오른 배상문은 8번 홀(파3)에서도 파를 지켜내며 여기서 또 1타를 잃은 김대현을 추월했다. 이 홀에서는 켄피언조 배상문, 김대현, 최경주의 티샷이 모두 왼쪽 벙커로 들어갔으나 배상문만 파를 지켰고 김대현과 최경주는 1타씩 잃어 희비가 엇갈렸다.

배상문은 10번 홀(파4)과 12번 홀(파3)에서도 한 타씩 줄이며 김대현과 격차를 벌려 나갔다. 또 11번 홀까지 배상문에 1타 뒤지며 역전을 넘보던 최경주도 12번 홀에서 2m 정도 거리의 파퍼트를 놓치는 바람에 선두로 차고 나갈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3타 차로 뒤지던 김대현은 13번 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냈지만 배상문 역시 버디로 응수하며 추격의 여지를 내주지 않았다. 16번 홀(파4)에서도 김대현은 10m 가까운 버디 퍼트를 넣으며 2타 차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배상문을 압박하는 듯했다.

배상문은 티샷이 벙커에 빠지는 등 세 타 만에 그린에 공을 올려 보기 위기에 놓인 터였다. 그러나 배상문은 8m 정도 거리의 파 퍼트에 성공하며 한숨을 돌렸다.

9일 끝난 매경오픈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정상에 눈앞에



웠던 김대현은 7.8번 홀에서 3타를 한꺼번에 잃는 갑작스런 난조에 발목을 잡혔다. 상금 1억원을 보태 이 부문 선두를 달리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최경주도 이날 5타를 줄이며 분전했으나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 단독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박기남 “상현아 봤지” 홈런포함 4안타 폭발

KIA, 넥센 13대 3 대파

볼볼은 방망이가 KIA의 ‘슈퍼 선데이’를 이끌었다. KIA 타이거즈가 23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시즌 8차전에 홈런을 포함 4개의 안타를 몰아친 박기남의 활약으로 13-3의 대승을 거뒀다.

선발 임무를 맡은 두 용병 KIA 콜론과 넥센 번사이드가 일찌감치 강판됐다.

1회 두 투수가 나란히 실점을 했다.

첫 타자 장기영에게 중전안타를 허용한 콜론이 2사 3루에서 폭투로 1점을 먼저 내줬다. 번 사이드도 1회 모습이 좋지 못했다. 김선빈을 몸에 맞는 볼로 출루 시킨 번사이드는 2사 1·3루에서 김상훈에게 적시타를 얻어맞았다.

콜론은 2회 투 아웃 이후 세 개의 볼넷으로 맞은 만루의 위기에서 유한준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는 등 2이닝 동안 3피안타 5사사구 3실점의 피침으로 조기강판 됐다. 번 사이드도 볼넷과 안타를 내준 2회 아웃카운트 하나 잡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3회말 안치홍이 시즌 첫 홈런을 터트리며 KIA 공격의 물꼬를 텄다. 선두타자로 나온 안치홍이 이보근의 직구를 그대로 밀어쳐 우측담장을 넘기며 2-3을 만들었다. 2사 1루에서 주자 차일목이 보크로 2루 진루에 성공

한 뒤, 박기남의 적시타때 홈을 밟으며 승부는 3-3 원점으로 돌아갔다.

5회 넥센의 실책으로 경기의 흐름이 KIA에게로 넘어왔다. 최희섭·김상훈이 연속해서 볼넷을 골라 걸어나가면서 1사 1·2루, 차일목의 좌중간 안타 때 최희섭이 홈에 들어오면서 역전에 성공했다. 포수 이선정이 3루로 진루하던 김상훈을 잡기 위해 송구한 공이 3루수 키를 넘겼고 그사이 타자주자 차일목까지 홈에 들어왔다. 이어진 타석에서 박기남은 좌월 솔로포로 승부에 화기를 밝혔다.

KIA 방망이는 2개의 홈런을 포함, 14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13-3의 완승을 이끌었다.

5회부터 마운드를 넘겨받은 김희철은 2와 3분의 2이닝동안 2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시즌 2승을 올렸다.

류현진-김광현 빅매치 무산

한편 4년을 기다린 좌완특급 한화 류현진과 SK 김광현의 ‘빅매치’가 비로 무산됐다.

23일 대전에서 열린 예정이던 한화 이글스와 SK 와이번스의 경기가 우천 순연됐다. 경기가 취소되면서 이날 선발로 출격을 기다렸던 류현진과 김광현, 두 괴물 좌완투수들의 첫 선발 맞대결도 성사되지 못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서운 신인 이정민 ‘5월의 여왕’

두산매치플레이서 데뷔 첫 우승

무서운 신인 이정민(18·삼화저축은행)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5억원)에서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정민은 23일 춘천 라데나 골프장(파72.6천536야드)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문현희(27·하나금융)에게 3홀차 승리를 거뒀다. 이정민은 우승 상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타수 합계로 순위를 정하는 스트로크플레이와 달리 매치플레이는 매홀 타수에 따라 승패를 가려 이긴 홀이 많은 선수가 승자가 되는 승부 결정 방식이다.

이날 오전 열린 4강에서는 김영주골프 여자오픈 챔피언 이보미(22·하이마트)마저 5홀 차로 이기며 돌풍을 이어난

이정민은 결승에서도 초반 기선을 잡았다.

이정민은 5번홀(파4)에서 버디를 적어내며 리드를 잡았다. 그러자 문현희가 곧바로 6번홀(파5)에서 버디로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 들어 이정민은 11번홀(파4)에서 또 한 번 앞서 나갔다.

두 번째 샷을 홀 50cm 바로 옆에 붙인 이정민은 버디 퍼트에 성공해 보기에 흔들린 문현희를 한 홀 차로 따돌렸다.

문현희와 13번, 14번홀에서 나란히 연속 보기를 적어내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이정민은 16번홀(파3)에서 문현희의 2m짜리 파퍼트가 홀을 외면하는 사이 차분히 파로 막아 2홀 차로 앞선 뒤 17번홀(파4)에서 버디로 승부를 갈랐다.

한편 3.4위전에서는 이보미가 조윤지(19·한솔)에게 4홀을 남기고 5홀차로 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골프여제’ 신지애 시즌 첫승 보인다

LPGA 사이베이스 매치플레이

위성미 제압... 유선영과 4강 대결

여자프로골프 세계 랭킹 1위 신지애(22·미래에셋)가 위성미(21·나이키골프)와 맞대결에서 이겼다.

신지애는 23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글래스스토নের 해밀턴 팜 골프장(파72.65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사이베이스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150만달러) 8강에서 위성미에 2홀 차로 승리했다.

12번 홀까지 1홀을 뒤졌던 신지애는 13번 홀에서 동물을 만들었고 15, 16번 홀을 연달아 따내며 승부를 갈랐다. 올해 LPGA 투어 5개 대회에 나왔지만 공동 3위 두 차례가 가장

좋은 성적인 신지애는 이로써 올해 미국에서 첫 우승을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일궈낼 가능성을 높였다.

드라이브샷 평균 거리 부문에서 위성미는 270.8야드로 2위에 올라 있는 반면 신지애는 232.8야드로 117위에 그치고 있어 정교한 쇼트 게임으로 거리의 불리함을 극복한 셈이다.

한편 4강에 오른 선수 가운데 세 명이 한국 선수라 ‘코리아 남자군’의 시즌 3승 전망도 밝아졌다. 유선영(24)은 세계 랭킹 4위 청아나(대만)를 상대로 역시 2홀 차로 이겨 신지애와 결승 진출을 다룬다.

양희영(21·삼성전자)도 강재희(20)와 접전 끝에 승리를 따내 4강에 합류했다. 양희영은 안젤라 스탠퍼드(미국)과 4강에서 맞붙는다.

/연합뉴스



WELCOME TO JERUSALEM

승로시리 승도

엔도라도리조트

서울에서 매일출발: 5월 31일부터 (최신형 관광버스)

5월 31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1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2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3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4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5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6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7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8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9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10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11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12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13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14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15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16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17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18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19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20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21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22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23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24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25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26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27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28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29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
6월 30일	10,000원	출발	10,000원	출발